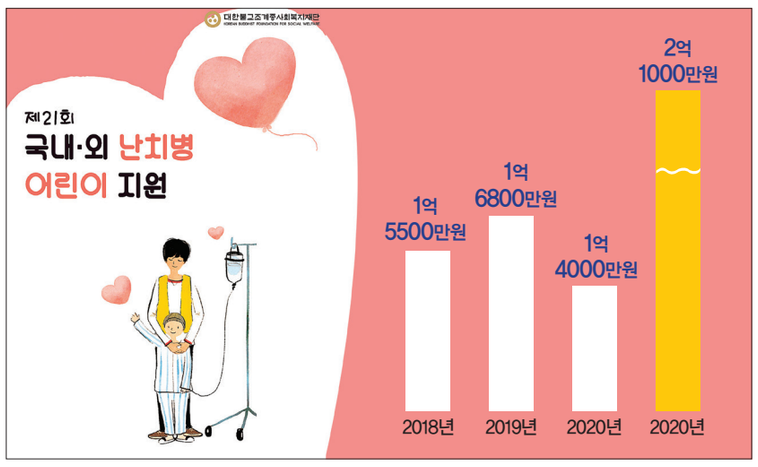
난치병 돕기 30% 증가…자비온도 높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2021 난치병 환아돕기' 모연 결산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2020년 온라인 모금 전환해
자리잡으며 연 2~30% 증가
기부처 찾는 이연 기부 눈길



코로나19로 사회적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하루하루 생사의 고비를 넘기는 난치병 어린이를 위해 자비온정을 보내는 이들이 늘고 있다. 2021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하는 난치병 어린이 돕기 캠페인에 동참한 불자들의 기부액이 30%이상 넘게 증가해 따뜻함을 더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3월 22일부터 6월 30일까지 진행한 제21회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지원 모연 결과 총 2억 1000여 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다.

2018년 1억 5500만 원, 2019년 1억 6800만 원, 2020년 1억 4000만 원에서 약 30% 이상 많은 기부금이 답지한 결과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지난 2001년부터 3천배 철야정진으로 난치병 어린이들의 치료비 기금을 조성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 모금 캠페인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기부 결과는 3000배 정진이 중단된 와중에도 2020년부터 도입한 온라인 모금이 자리를 잡고, 위기 속에서 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보살피는 마음이 확대된 결과로 풀이된다.

김유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팀장은 "지난해가 코로나19로 각자의 삶이 너무나 힘든 시기였다면, 올해는 더 어려운 난치병 어린이를 보살피는 여유들이 생기신 것으로 보인다. 또 각종 오프라인 기부처가 축소되면서 발생한 이연기부도 온라인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난치병 어린이 돕기 특별방송을 진행하는 BBS 거룩한만남 측은 6월 22일 조계종에 특별방송 모연 성금을 전달하며 매년 2~30%씩 사연을 접하고 기부하시는 분들이 늘고 있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번 모연에는 동화사, 불국사, 고운사(안동불교사암연합회, 의성불교사암연합회), 화엄사, 선운사, 낙산사, 흥천사, 안성 칠장사, 경기 흥법사, 명법사 등 많은 사찰이 참여했다. 특히 서울 조계종 복지재단으로 직접 찾아와 기금을 전달한 불자들도 많았다.

모연 기금은 국내 환아 20여 명과 해외 라오스 아동의 치료비 및 수술비 지원에 사용된다.

태어난지 5개월 만에 근육이 위축되는 희귀병 진단을 받고, 산소호흡기에 의지해 생을 이어가고 있는 3살 시아양. 뇌 기형 장애를 갖고 태어나 시력저하에 여러 합병증을 앓고 있는 세솔 군 등이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무형성빈혈로 2번의 골수 이식에도 3번째 골수 이식 수술이 필요한 정운 군의 경우 네이버 해피빈 등에서 온라인 모연이 진행 중에 있다. 수술 1회에 해당되는 400만 원과 의약품, 생활용품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스님은 "우리는 어려울 때일수록 남을 돕는 마음이 더욱 뛰어난 듯하다. 특히 자비희사의 마음을 실천하시는 불자님들에게 감사하다"며 "작은 정성이 모이고 더해지면 큰 힘이 될 것이다. 모연된 성금을 지금도 병상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아이들이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도록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7월 9일 7시 조계사 대웅전에서 난치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3000배 정진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촌차문화 학술상에 박동춘 소장 선정

한국다도협회, 7월7일 시상
공로상엔 해인사 능혜 스님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

한국다도협회 창립자인 故 다촌 정상구 박사의 원력을 이은 '다촌차문화상' 학술상에 박동춘 (사)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이 선정됐다. 또 공로상에는 능혜 스님과 박희준 한국발효차연구소장, 교육상에는 정영진 부산여성미술협회 초대이사장과 양은순 · 최명자 부산여대 외래교수가 각각 선정됐다.

(사)한국다도협회(이사장 왕세창)는 최근 제20회 다촌차문화상 수상자를 선정해 발표했다.

다촌차문화상은 우리나라 다도 교육과 한국전통문화 보급 · 발전에 기여한 다인(茶人)의 공로를 치하하기 위해 1997년 故 다촌 정상구 박사의 호를 담아 처음 제정됐다.

故 다촌 정상구 박사는 한국 전통차문화 연구에 한 획을 그은 다인(茶人)이자 부산여자대학교 설립자이기도 하다. 한국 전통차문화의 확산을 이끌겠다는 원력으로 부산여자대학에 차 관련 학과를 설치, 지금까지 수많은 학생들을 배출하고 있다.

특히 이번 다촌차문화상은 한국다도협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선정됐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학술상을 수여한 박동춘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장(한국전통문화대 겸임교수)은 응송 스님으로부터 전다계를 받아 초의선사 제다법의 5대 전승자로, 한평생 전통차 연구와 계승 · 발전에 매진해 온 학자이자 다인이다. 공로상을 수상한 해인사 원당암 능혜 스님은 불교고유의 전통 향방 전수자로서 1993년 '취운향당'을 설립해 우리나라 전통향 보급에 기여해 왔다. 정영진 이사장은 부산여대 교수와 차박물관장 다도관장 등을 역임했으며 양은순 · 최명자 부산여대 외래교수와 함께 다도 교육을 통한 차문화 보급과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왕세창 이사장은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생략된 제19회 다촌차문화상을 올해 20회와 함께 선정해 수상의 영광을 드리게 됐다"며 "한국다도협회 40주년 창립기념일을 맞아 다촌 정상구 박사님과 정남이 총장님께서 남긴 한국차문화의 의미를 계승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종단 국내외정책 이끌 국제교류위원 위촉

조계종, 9기 위원 위촉식
해외사찰 전문사 첫 포함



조계종은 6월 30일 제9기 국제교류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해외사찰 교류와 국제포교, 각종 국제회의를 포함해 종단의 해외 관련 정책을 이끌어 갈 국제교류위원회가 새롭게 구성됐다. 특히 9기 위원회는 처음으로 해외사찰 현장에서 포교활동을 전개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들이 포함돼 향후 해외 특별교구 활성화에 기대가 모이고 있다.

조계종(총무원장 원행)은 6월 30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종단 국제정책 수립 및 대외 전략을 자문할 제9기 국제교류위원 위촉식을 진행했다. 당연직 위원장은 사회부장 원경 스님, 위원은 당연직 위원인 포교부장 정인 스님을 비롯해 각 분야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됐다. 임기는 2021년 6월 30일부터 2023년 6월 29일까지, 2년이다.

위촉위원은 명법 스님(은유와 마음연구소 소장), 성진 스님(군종교구 사무처장), 정범 스님(중앙종회의원, 현 국제불교네트워크 대표), 문종 스님(뉴욕 백림사 · 前 미동부해외특별교구 총무), 경완 스님(2018 · 2021년 조계종 교육아사리), 조은수 서울대학교 철학과 교수다.

9기 위원들은 △문화 · 인문분야 △국제포교분야 △해외교구 · 해외사찰분야 △국제교류 · 학술분야에서 큰 성과를 나타내고 있는 전문가들이자 국제회의 참여와 발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처음으로 해외포교 현장에서 활동해 온 스님들을 위원으로 위촉함에 따라, 향후 해외교구 · 해외사찰 분야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이날 위촉식에서 "국제교류 분야가 갖는 중요성에 비해 그동안 종단의 관심이 적었다"며 "새롭게 구성된 9기 국제교류위원들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스님은 이어 "다양한 종교 관련 국제행사에서도 위원들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한다"며 "특히 남북관계와 UN문제 등 국제적 현안에 대해서도 관심과 자문을 통해 관계 부처가 힘을 합쳐 잘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덧붙였다.

위원들도 그간의 해외활동 경험을 살려 종단의 국제적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소관부서인 총무원 사회부는 "앞으로도 각 분야에서 실질적인 현장 활동 경험과 더불어 풍부한 국제교류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위촉함으로써 국제전문가 그룹과 업무적 협력관계를 한층 강화하고 구체적 종책 제안과 실현에 중점을 둘 계획"이라며 "제안된 의견을 적극적으로 종책 수립에 반영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탄소중립기본법, 졸속 추진 안 된다"

불교기후행동, 6월 25일
실질적방안 마련 촉구해

정부가 5월 29일 대통령직속으로 2050 탄소중립위원회를 출범시켰고 국회는 이수진 의원과 임이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제도 · 정책적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그동안 기후위기 대안을 모색해 왔던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와 국회에 "졸속추진"에 대한 우려를 드러내고 있어 주목된다.

불교기후행동은 6월 25일 '탄소중립 기본법 제정과 2050 탄소중립위원회에 대한 의견' 제하의 입장문을 내고 "실질적인 기후위기 대응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불교기후행동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고 민관이 합심해 노력한다면 기후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희망한다"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기구가 만들어진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몇가지 우려되는 부분을 밝히고자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적인 문제로 △탄소중립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시스템이 지나치게 관중심적인 점 △로드맵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공급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 △탄소중립법안의 비공개 졸속 추진 등을 꼽았다.

국회 본회의 상정까지 관련 법안이 공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불교기후행동은 "탄소중립은 급격한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매우 중요하다"며 "상정 이전에 법안을 공개하고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통한 합의안이 도출되어야 탄소중립을 향해 힘 있게 출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불교기후행동은 현재 본회의에 상정된 탄소중립기본법안 철회와 함께 정부에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송지희 기자

